

# 육계업, 안정된 직업 구축에 중점을 둔다.

□ 정리/김동진 기자



△이원홍 분회장

**충**주지역은 각 도와 접해 있는 충북의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육계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충주를 중심으로한 육계농

가는 '90년 초 계열화 사업의 붐을 타고 80여 농가에서 현재 120여 농가로 양산되는 등 큰 변화가 있어왔다. 또 지역 특성상 각 지역과 접해 있으

면서 서울과의 교통이 원활한 관계로 서울 또는 지방출하가 생산량의 90%에 달하고 있으며 진천, 음성, 제천 등 각 지역에 도계장들이 가동되고 있어 생산에서 유통까지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간혹 양계장의 밀집현상으로 질병발생빈도가 높고 생산과잉에 의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농가의 대부분이 계약생산에 의한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안정된 직업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충주지역이 육계업의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타지역보다 늦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충주지역 육계인



△'92년 11월 현판식때의 모습

들은 스스로 자생의 길을 찾기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지난 '92년 11월 협회에 정식 가입했는데 사실 10여년 전부터 “육계농가 안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맥을 이어왔었다.

가입당시 21개 농가에서 현재 50농가로 그 규모를 넓혀갔으며 평균 사육규모는 2만수에 달한다. 현재 중원군 양성면에 5만수, 3만수 규모를 각각 경영하고 있으면서 회원들의 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사무실에 들르는 이원홍씨는 육계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열중하고 있다.

이원홍 분회장은 ‘이제부터 육계인들은 프로기질을 발휘할 때’라 강조하고 개방화 시대에 돌입하여 농축산물중 국

### “이제부터 육계인들은 프로기질을 발휘할때”

내 닭고기만은 외국 닭고기와 경쟁해 갈 수 있다는 신념아래 분회를 힘있는 단체로 만들어 사료나 약품업계의 구매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육계업의 선두주자로 분회를 이끌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분회의 활동은 세미나 형식으로 한달에 한번씩 열리는 월례회를 중심으로 이끌어져가는데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

을 각종 토론형식으로 풀어가며 특히, 경험이 많은 원로들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93년을 조직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하면서 회장(이원홍), 부회장(정기승), 고문(강문달), 총무(권오승), 기획실장(김홍한), 운영위원(이명훈, 이종화, 정한섭)들이 앞장서 분회를 지역 조합형식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첫번째 사업으로 축협과 연계해 수매·비축할 수 있는 200평 규모의 냉장, 냉동을 겸비한 저장창고를 확보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매장판매까지도 계획중에 있다. 두번째로 '95년 부터는 생산비의 10~20%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리란 기대로 충주지역 단위 육계 사료공장을 추진중에 있다.

이원홍 분회장은 대부분의 농가가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어 사양관리에 힘을 기울일 수 있으나 계열업체들의 저질 사료공급이 생산성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계열화 자금이 생산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게끔 배려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양14**